

교내 차량 2대 中 1대 교통출입증 미부착

30일부터 집중 단속

학부생 다수 출입증 미발급



교통출입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들이 인도와 도로에 맞물린 위치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다.

교통출입증을 미소지한 차량 때문에 교내 교통관리가 혼선을 빚고 있다. 주차된 차량 중 절반이상이 무단으로 주차돼 있다.

작년 발급된 교통출입증은 △교직원 620개 △학부생 290개 △대학원생 160개 △시간강사 130개 △교내상주업체 90개 등 총 1200개가 발급됐다. 그러나 제주대를 출입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1500대이다. 교내 주차공간은 약 2000여대를 수용할 수 있지만 항상 자리 싸움이 빈번한 상황이다.

일부 차량들의 도가 지나친 행동들이 있다. 순환버스가 운행되는 도로나 인도와 도로에 맞물린 위치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차량 주인을 호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출입증이 부착되지 않아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빈번하다. 또한 출입증을 위조한 사례들도 있다.

1·2학년 학부생을 제외한 학내구성원들은 교통출입증을 배부 받아야 교내에 주차할 수 있다. 출입증 기한은 1년이며 처음 발급받을 시 수수료 3만원을 지참해야 한다.

출입증을 배부해 징수한 수수료는 대부분 교통관리에 쓰인다. 출입증 수입을 포함

한 기타 유지비 명목으로 받은 총 금액은 한 해 평균 약 6000만원이다. 이 돈으로 주차라인을 그리거나 차량스티커를 만든다. 출입증을 부착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질수록 교통관리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총무과는 건물 위치 별로 나눠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 때문에 하루 50대 이상은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총무과 표성철 실무관은 “입무를 제쳐두고 단속에만 몰두한다면 하루 평균 300~400대에 경고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며 “교직원과 대학원생들은 90%이상이 출입증을

발급했으나 학부생들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차비용도 따로 징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1년에 3만원은 큰 비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총무과는 2일부터 27일까지 출입증 발급 계도기간을 갖고 있다. 3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위반 차량은 △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월 2회 위반시 경고장 발부 △월 3회 위반 이후부터 1개월간 교내출입금지 △학기당 5회 이상 위반시 다음 학기 출입금지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백승규 기자

문화콘텐츠 창의아카데미 개최

지난 12일 인문대학에서 열려

인문학적 상상력 중요성 강조



현충열 (제주씨네아일랜드 대표)씨가 '상상력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라는 강연을 하고 있다.

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동진 사학과 교수)은 12일 오후 4시 인문대학 2호관 대강당에서 '상상력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라는 주제로 문화콘텐츠 창의아카데미를 열었다.

취·창업 대비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제3회 문화콘텐츠 창의아카데미의 강연은 현충열 (제주씨네아일랜드 대표)씨가 맡았다.

이번 강연은 참여학과(사학과·국문과) 학생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에 관심 있는 제주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인문학적 상상력이 어떻게 영화 속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되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를 가졌다.

사업단은 올해 총 15회에 걸쳐 인문학적

상상력의 현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테마의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승규 기자

수자원관리 워크숍 열려

제주수자원연구단(단장 양성기 토목공학과 교수)은 19일 오후 2시 제주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1회 제주도 수자원관리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 시작과 함께 제1세션에서는 양성기 단장이 '제주형 물순환 해석 및 수자원 관리 기반구축', 단국대 김서준 교수가 '제주지역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최적 대응기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제2세션에서는 단국대 김동수 교수가 '정밀 유량관측 DB구축 및 CCTV 영상을 활용한 유량측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일문 연구위원이 '제주지역 통합수문해석 결과의 실용화 방안', 한국농어촌공사 송성호 수석연구원이 '미래 가뭄예측을 통한 제주도 권역별 농업용 지하수 수요량 평가'를 주제발표 한다.

제3세션에선 '제주도 통합수자원관리와 수문성분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이 진행된다.

김해건 기자

‘주인없는 장애지원센터’ 소외된 장애학생

장애지원센터 상주직원 필요

복지과 장애지원업무 겸임

학생회관 3층 장애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장애학생들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제주대 학적 장애학생지원센터 3조 3함에 따르면 '센터에 전담직원을 두며 사회복지사 또는 특수교육 전공자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인력부족의 문제로 센터에 상주하는 전담직원을 두지 않고 있다.

2015년 2월까지의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학업무 병행하는 학생복지과 소속 직원이 있었다. 하지만 지원센터에 상주하지 않고 학생복지과에서 일을 처리해 장애학

생들이 적지 않은 불편함을 겪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는 담당직원마저 사임해 센터지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학생복지과 직원들이 장애지원 업무를 겸임하고 있다.

최현태(사회학과 4)장애인인권대책위원장은 “지원센터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물품 대여 등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었다”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마다 학생복지과에 전화해 필요한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생복지과와 지원센터간의 거리도 있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일부 학생들은 담당직원이 장애학생들이 필요한 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닌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담당직원이 지원

센터에서 상주근무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지원센터를 학생복지과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거리적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학생복지과의 관계자는 “인원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현재 지원센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인력문제가 해결된다면 장애인인권센터에 전담직원을 두겠다”고 말했다.

총무과 강태영 인사팀장은 “인원부족 문제와 관련해 현재 학교에서 인력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회의를 통해 장애지원센터에 전문인력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지원센터는 학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에 설립됐다.

김해건 기자



“싱그런 봄이 왔어요” 따뜻한 날씨 덕분에 가벼운 옷차림을 한 학생들이 농구를 하고 있다.

백승규 기자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

산학협력단 부설 좋은컴퓨터교육연구센터는 ㈜네이버와 공동 주관으로 오는 4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토요일 도내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신청은 오는 16일까지 네이버에서 '소프트웨어아 놀자' 검색 후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우측 URL을 통해 신청 (<http://me2.do/xvveDxks>) 하면 된다. 이번 교육은 재학생이 멘토를 맡는다. 교육장소는 제주도 사범대학 2호관 3220호실이다.

문의=좋은컴퓨터교육연구센터(☎754-3291) 전지민 기자

소비자권익위한 협약 체결

제주대(총장 허향진)는 11일 제주YWCA에서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제주특별자치도소비자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태성, 문영희)와 제주지역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소비자 지향적 시장 환경조성을 위한 정보 공유 △지역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동 학술 연구 및 조사 △제주지역 여행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기타 각 기관의 협력·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력기로 했다.

부찬우 기자

작은 정성과 참여가 제주대학교의 저력을 크게 키웁니다

ARS(060)는 한통화에 3000원이 적립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대학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금액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RS제대사랑 수신기금

발전기금에 관심은 있으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화한 통화로도 기금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6 0 - 7 0 0 - 1 0 2 0

(재) 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RS(060-700-1020)은 한 통화 당 3,000원 금액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자동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우리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 방법 : 전화정보교환서비스(ARS 060-700)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보이용료 및 수납대행료 납부

· 번호 : 060-700-1020(대학 신주소 제주대학로 102표기)

· 후원금 : 1통화당 3,000원

· 안내멘트 :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삐소리가 난 후 부터는 전화사용료 외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후원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시오. 삐~~ 보내주신 후원금은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설

학창 시절 해야 할 일

취업난, 경제난으로 젊은이들의 아끼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대학의 풍경이다. 그래서인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젊은 대학생들에게는 열정과 에너지의 강력함이 약해지는 것 같다. 모질고 험난한 세상에 대한 도전과 패기보다는 두려움과 걱정거리를 가득 안은 나약한 존재감이 더욱 커지는 것만 같아 애처로울 때가 많다. 왜 우리 젊은이들이 이러한 모습에 처해 있는 것일까. 이는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달리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경제적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젊은이들 자신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스스로 깊은 고민과 준비를 하여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4년은 참으로 중요한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문분야의 지식습득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의 학생(大學生)으로서 인생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자신의 삶과 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 깊은 자기성찰의 시간이자 준비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롭게 대학의 문을 두드린 신입생과 사회진출을 목전에 두고 걱정스러워하는 재학생들에게 학창시절 꼭 했으면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적어도 분기별로 인문사회분야의 도서 1권을 골라 읽도록 한다. 인문학의 우리 세상살이의 기본을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모든 학문의 근간은 인문학과 깊은 관련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분기별로

적어도 4권의 인문학 서적을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의 전공분야의 가치와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기별로 꼭 영어시험을 쳐서 자신을 관리하기 바란다. 취업을 위해 영어공부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영어는 자신의 전공분야 지식습득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변화가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셋째, 매일매일 신문 사설을 꾸준히 읽고 생산적인 비판을 해보길 바란다. 신문 사설은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코너이다. 한정된 지면(紙面)에 핵심 의미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세련되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글이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사설을 읽고 스스로 생산적인 비판을 해보는 것, 이것은 사회적 문제인식과 논리적인 생각을 구축하는데 좋은 훈련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행을 자주 떠나길 바란다. 여행만큼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아마 자신의 전공분야의 지식을 더욱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

올해에도 언제나 그러하듯 신학기에는 청춘의 상징인 20대 꽃다운 신입생들이 캠퍼스를 가득 채운 강한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다. 그 젊음과 열정을 갖고 미래를 꿈꾸며 필자가 제시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돈과 아르바이트

아직 겨울은 떠나기엔 아쉬운지 봄이 저만치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요즘이다. 그러나 봄을 느끼기엔 충분한 새내기의 풋풋함과 열정은 캠퍼스에 배어 있다.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의 설렘과 함께 입학 전부터 등록금 등 학비 부담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경험을 쌓아보려고, 용돈벌이, 새로운 전자기기 구입 등 다양한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도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렸다.

1980년대만 해도 어느 갈국수 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여대생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다는 어느 대기업 사장의 신문 칼럼도 있었다. 당시에는 대학을 진학했다는 자체만으로 엘리트 의식을 느끼는지 혹은 선택의 폭이 적었는지 일부 대학생들만 아르바이트를 했다. 대부분은 과외지도이고, 일부는 공사장일이 전부였던 시절이었다.

독일에서 쓰이는 용어 ‘아르바이트(Arbeit)’와 한국에서 쓰이는 ‘아르바이트’의 의미는 좀 다르지만,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학생이 본업인 학업이외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시간 투자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뜻한다. 직업의 소중함, 따의 가치를 느낄 수 있고, 사회를 알고 경제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어 학업을 마친 후 사회 적응을 빠르게 할 수 있음을 믿고 있다.

근래에는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선택의 폭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고, 그런 만큼 부작용도 주위에 비일비재하다. 한 학기에 수백만원 이상 하는 대학 등

등록금을 내기 위해 돈을 빌리고, 이를 아르바이트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학업생활을 뒷전에 두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대학생들 중 아르바이트의 본질은 경험보다는 돈을 버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아픈 청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실태 조사도 있다. 즉,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의 꿈을 꾸어야 하는데, 현실에 안주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아르바이트 생활은 문제가 있다. 이처럼 맹목적으로 돈만을 쫓는 아르바이트는 사람을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든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돈처럼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근래 신문기사에는 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잇고 있다. 이는 돈에 대한 잘못된 사고와 이해에서 비롯된다. 사랑과 함께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은 돈이다.

‘사랑은 무엇인가’는 노래, 책, 연극, 영화, 드라마 속에서 끊임없이 다룬다. 그러나 ‘돈은 무엇인가’에 대해선 그만큼 언급하지 않는다. 돈이 화폐 또는 자본으로서의 속성으로서의 경제·경영·회계학적 접근만 있을 뿐이다.

돈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정작 이것에 대한 실체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다. 미래의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 돈 버는 훈련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할지에 관한 인문학적인 대학교육이 더 필요한 요즘이다.

백두관 식당 가격 인상… 매년 적자폭 상승

매점·자판기·분식메뉴 수익 매우 낮아

식재료비 입찰 계약 가격 약 2000만원 올라

아라캠퍼스 백두관(학생회관) 식당의 식대가 2일 인상됐다. 정식 200원, 양식 300원 인상으로 정식은 2200원, 양식은 3000원으로 가격이 확정됐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사장 고윤희 학생처장 이하 생협)에 따르면 큰 적자 폭과 운영비용의 증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밝혔다.

작년 생협은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8억 원을 달성하며 호황을 누리는 듯

했지만 오히려 손실액은 1억 원에 달하며 지난 대비 손실액이 7000만 원 증가했다.

물가 인상에 따라 재료비 988만 3503원, 임금 개선으로 인해 인건비 386만437원, 시설장비 유지, 세금 및 공과금 등으로 인한 기타 비용 1766만3432원이 증가해 매출액 이상의 적자가 발생, 지난해보다 더 큰 적자 폭이 발생했다.

매점과 자판기 수익이 줄고 분식점

수익이 처음 예상보다 저조해 이련 적자 폭이 더 커졌다. 2014년 새로이 문을 연 분식점의 경우 월 손익분기점은 420만 원이다. 그러나 개장 후 처음 3월을 제외하고선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월 평균 280만 원이라는 기대 이하의 수입을 보였다.

더욱이 2015년 식재료비 입찰 계약 가격도 지난해 1억8166만6600원에서 2억194만920원으로 2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육류 부분이 가장 큰 인상폭을 보였는데 이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황우화 사무국장은 “가격 인상에 의한 학생들의 불만 사

향을 이해한다”며 “식사의 질을 꾸준히 높이기 위해 식대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식의 경우 2014년 2학기부터 고급 재료로 바꿨기에 이번 인상은 순수 재료비만 반영된 것”이라며 “2015년 하반기부터 전국대학생협연합회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 참여 등을 통해 식대 안정화를 도모하고 생협 내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라캠퍼스 학생식당도 예정 가격이었던 3800원에서 200원 인상됐다. 식권 10장을 사면 1장 추가 지급 방식으로 변경됐다. 부찬우 기자

제주대, 3년 연속 ‘유학생 유치관리 우수대학’

‘CEO 특강’ 열려

6개 평가 항목 중 5개 기준 충족돼

총 유학생 309명 가운데 중국 유학생은 288명

제주대가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이하 유학생 인증제)’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2011년도에 효과적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교육부가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매년 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유학생의 사증발급 심사기준 완화,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 연장, 유학생 관련 재정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더

불어 교육부 주관의 각종 박람회, GKS(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 제도) 사업 선정 시 우선 고려된다.

유학생 인증제는 크게 3단계의 평가 과정으로 구성됐다. 1, 2단계는 정량평가, 3단계는 정성평가이다.

1단계의 상위 70%만 평가 대상으로 지정돼 2, 3단계를 진행한다. 2단계는 △중도탈락률(불법체류를 포함) △외국인유학생 다양성 △재정

건전성 △의료보험 가입률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언어능력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2단계의 6개 항목 중 5개 항목이 기준에 충족해야 인증을 받는다.

제주대는 외국인유학생 다양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항목의 기준을 충족했다. 5개 항목 중 언어능력이 기준인 30%보다 27.47%p 높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전체 유학생 309명 가운데 중국 유학생이 288명으로 93.2%를 기록했다. 이는 90% 미만의 기준을 3.2%p 초과하는 수치다. 전지민 기자

제주도 어린이급식센터, 사업설명회 실시

양질의 서비스 지원 약속

위생관리 철저히 준비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1·2·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주1센터 센터장 고양숙, 제주2센터 센터장 채인숙, 제주3센터 센터장 이윤경)는 10일 서귀포시 동홍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서귀포 어린이집 연합회 대의원을 대상으로 ‘2015년 센터 사업 설명회’를 공동으로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제주3센터의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를 지원하게 됐음을 알렸고 3개 센터는 양질의 서비스 지원을 약속했다.



어린이급식센터가 10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3개 센터는 올해 중점 관리사항으로 제주도의 어린이 비만을 저하를 위해 범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채인숙 센터장은 “직접 어린이집에 방문해 급식소의 영양과 위생 상태를 파악하겠다”며 “영양관리를 위한 식단제공과 식재료의 위생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제2기 인문학지도자과정 입학식 개최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 2기 입학식이 9일 라마다플라자제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수 입학생은 김경호 씨 등 64명이다.

이 과정은 인문학의 대중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인문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제주대의 역할을 제고기 위해 2014년 개설됐다.

이창익 인문대학장은 환영사를 통해 “배움을 추구하기 위한 원생들의



‘인문학 최고지도자과정’ 2기 입학식이 9일 라마다플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입학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창진	편집인·주관 최낙진
편집국장 백승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u.ac.kr

인터뷰 김호심(초등실과교육전공) 신임 사회교육대학원장

실무 중심의 교육 지향… ‘전문인력 양성’

학과에 최대한 지원

대학원생 진로 도움

▶취임 소감은.

대학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국립대학 최초이자 유일한 사회교육대학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요구가 큰 만큼 2년간의 임기 기간 동안 대학원을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지역적,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대학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대학 및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학원 신설 7년, 앞으로의 과제는. 사회교육대학원은 급변하는 사회 흐름 및 진로 개발의 측면을 고려해 학문적 연구는 물론 실용적 연구를 병행하여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자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9년부터 스토리텔링학과와 심리치료학과를 개설, 운영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새로운 전문 분야로 부상한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원생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대학원의 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수업 및



연구를 위한 행정적 편의 지원과 분위기 조성은 물론, 졸업 후 대학원생들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 등 개선 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갈 것이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사회교육대학원이 아직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아 이에 대학원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 앞으로 대학원의 발전을 위해 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며, 입학생 충원 및 학과 간 공동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

스토리텔링학과와 심리치료학과는 물론 상대적으로 늦게 개설된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특히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와 심리치료학과를 개설, 운영해 왔으며, 2014년부터는 새로운 전문 분야로 부상한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사회교육대학원으로서 우리 대학원의 특별한 점은.

사회교육대학원은 융·복합적인 연구의 흐름과 제주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학과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학문적 연구와 실용적 분야를 병행하여 교육하는 것이 우리 대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자 목표다.

스토리텔링학과는 제주 에니메이션 ‘응까소나타’ 등 매우 활발하게 지역 사회와 연관된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심리치료학과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심리적 문제와 갈등의 해결방법을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전망이 밝은 학과이다.

자연·문화유산교육학과는 전국에서 유일한 학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하고 얼마든지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등 제주도를 거점으로 각 학과들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원으로 부상할 것이라 생각한다.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우리 대학과 제주사회의 발전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더욱 활성화된 대학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은 학부졸업자들의 관심은 물론 대학 구성원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조연을 부탁드립니다. 부찬우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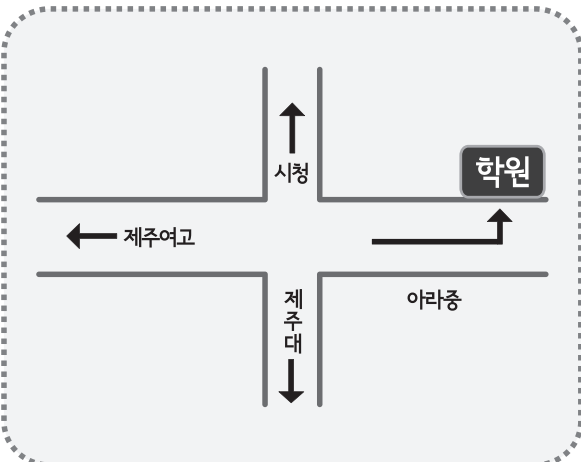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주말교육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5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이하여,

제35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또는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5년 5월 22일(금) 17:00까지

4.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백록문학상 응모시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파일을
E-mail : press@jejuu.ac.kr로 제출해야 함.
* 원본파일은 본인 이름과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바랍니다.
* 문의처 : 신문방송사 행정실 Tel. 754-2282

5. 발표 : 제주대신문 939호(2015년 6월 3일(수))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기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기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무관심 속 흔들린 제주평화나비의 날갯짓

표현해야 문제 해결돼
할머니들 명예·인권 필요

위안부 할머니들을 향한 허물을 벗은 제주평화나비의 아침찬 날갯짓은 아름다웠지만 바람은 냉랭하고 매서웠다.

11일 오후 12시, 점심시간 시작과 동시에 제주에서의 2번째 수요일이 학생회관 앞에서 열렸다. 새 학기의 수요일 점심은 분주한 발걸음들로 북적였다.

학생회관 안은 어느 동아리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를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한라타에서는 외부 봉사동아리가 홍보활동으로 분주했다. 그리고 학생회관 입구 앞에서는 수요일이 열렸다.

그 수많은 발걸음은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 보듯이 수요일 위 현장을 힐끗 보고는 무심코 지나갔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들을 향한 여러분의 열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출지 않은데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람들의 무심한 반응에도 진행자는 씩씩한 인사말로 수요일의 시작을 알렸다.



윤용택(철학과) 교수가 시위 연설을 하고 있다.

수요일 위 연설의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윤용택 철학과 교수였다. “식민지의 삶이 노예의 삶이라면 분단의 삶은 민족 불구의 삶”이라는 소설가 조정래의 문구를 인용해 운을 댔다.

그는 제주대에 16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불의와 잘못에 대해 눈감고 침묵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있나?” 하며 수 없이 반성했다고 고백했다. 그런데 평화나비의 용기 있는 활동을 보고 감동 받았으며 존경을 표했다.

다음 차례로 강단에 오른 양혜찬(국어교육 3) 사범대학 학생회장은 이 현장을 바빠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도 모두 피해 할머니들에게 대한 소중함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아낌없이 표현해야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설을 듣는 20명 남짓의 청중들은 연설자들의 말을 들으며 죄송한 듯 고개를 푹 숙이거나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참여자는 눈물까지 보였다.

마지막에 참여자 모두가 외친 ‘이 땅에 평화를, 할머니들께 명예와 인권을!’이라는 구호가 하루빨리 실현되는 길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갈 길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같이 외쳐주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처칠이 말했듯이, 아픈 과거를 되돌아볼 시점이다.

전지민 기자

제주대 대표 14명, ‘호놀룰루 페스티벌’ 참가

제주·제주 해녀 홍보
하와이 내 한인 큰 호응

허향진 총장을 포함 등 교직원 3명·대학원생 2명·학부생 9명 총 14명은 5일부터 6일간 열린 하와이 호놀룰루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축제는 △제주 문화 및 제주 해녀의 우수성 홍보 △하와이 대학 마노아 캠퍼스와 학술교류 협정 체결 △카피울라니 커뮤니티 컬리지(KCC), 도카이 인터내셔널 컬리지(TIC)를 방문해 교수 및 학생교류 관련 업무 회의 등의 목적을 가졌다.

5일 방문단은 하와이 도카이 인터내셔널 컬리지를 방문해 학술 및 학생·교수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교환을 가졌다. 또 GNE 프로그램 관련 업무회의를 진행했다. 이후 카피울라니 커뮤니티 컬리지를 방문해 지역특성화 사업 장학생프로그램 소개 및 간 호대학과의 교류 관련 업무회의를 개최했다.

6일 방문단은 하와이대학교 마노아캠퍼스 한국학센터 회의실에서 학비면제 및 자비 교유수학생에 관한 업무를 협의했다.

7일부터 이틀간 방문단은 하와이 호놀룰루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참가



방문단이 하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도 전통문화에 대해 소개하는 ‘Education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했다.

행사서 현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Education Program’이 진행됐다. 이는 제주대로 지정된 부스에서 제주와 해녀를 소개하고 자료·기념품을 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방문단은 해녀 공연을 하고 호놀룰루 페스티벌을 관람했다. 공연은 10명으로 구성된 제주대학생팀이 서귀포 향토문화보유자인 이연심 씨로부터 전수받은 해녀춤을 선보였다. 또 제주 문화와 전통을 하와이도

민들에게 영어로 설명하며 알리는데 기여했고 한국 교민들에게 큰 호응을 유도했다.

학생대표 장민희(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씨는 “제주도민으로서 해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참석했다는 자부심이 크다”며 “다만 예전 페스티벌을 참가했던 사람들과 교류가 없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제주대에 제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백승규 기자

‘인문강좌’ 5월 14일까지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동운 사학과 교수)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모하여 선정된 <인문도사지원사업>의 하나로 5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인문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좌는 △제주목관아지의 복원과 역사적 의미(김동전/제주대 교수) △문학으로 읽는 제주인의 삶(김동운/제주대 교수) △제주해녀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유철인/제주대 교수) △제주 민속문화의 이해(현승환/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 제주의 역사·문화·예술 등 11개의 다양한 주제로 기획됐다.

탐라문화연구원은 “제주 지역 인문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인문강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제주 지역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인문학과 소통하고 인문학적 정서를 높이고 인문학의 즐거움을 일깨우는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탐라문화연구원(☎754-2310)

백승규 기자



도민들이 탐라문화원이 주최한 ‘인문강좌’를 경청하고 있다.

생활과학지도자 7기 입학

자연과학대학(학장 이남호 화학·코스메틱학부 교수)은 5일 제주칼호텔에서 생활과학지도자과정 7기 입학식 행사를 했다. 이번 입학식은 강경식 씨 등 85명이다. 이 과정은 도민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도내 과학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남호 학장은 “미래산업 IT·BT·화장품·전기차·풍력·융합해수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과학분야 지도자를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부찬우 기자



생활과학지도자과정 7기 입학식이 5일 칼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기고

사범대생에게 교과서란

교과서, 사범대생의 무기
출제 유형·경향 파악 가능

식상한 비유이지만, 사범대 학생에게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전쟁터에서의 무기과 같다. 공립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인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임용시험)에서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연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재학생 신분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학과 사무실, 중앙도서관 등에 비치된 교과서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다. 그 도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본 글에서는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교과서를 통해 임용시험의 출제 유형과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교과서는 임용시험의 전공영역과 관련이 깊다. 전공영역은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교과내용이란 대학 수준의 깊이 있는 전공지식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고 교과교육은 그러한 지식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수준으로 실현된 것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묻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다루는 지식 수준과 그 지식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만든 학습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임용시험의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출제 문제를 예측하는 것은 시험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때 교과서를 활용한다면 분명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교과서를 통해 명제적 지식 이상의 방법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서술형으로 유형이 변한 후로부터 임용시험은 더는 단순 지식의 많고 적음을 묻는 시험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어 과목에서 문학 작품의 해석에 관해 묻는 문제는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이다. 이전까지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의의가 있고 유명한 작품이 나오고, 그 해석에 대해 옳고 그름을 물어보았다.

그러나 최근 시험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르게, 아무도 접해보지 못했을만한 생소한 작품을 주고 그 작품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다. 객관식 시절에는 누가 얼마나 세세하게, 남들이 보지 않는 것

까지 기억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았던 서술형으로 바뀐 최근 두 번의 시험에선 기본적인 내용이라든 그 지식을 정말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출제 경향에 대응하는 데에도 교과서가 도움을 준다.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직접 풀어봄으로써 지식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통해 수업 실연을 준비할 수 있다. 임용시험의 지필 평가인 1차와는 달리 2차 시험은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 실연,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수업지도안을 작성하고 수업 실연을 하는 데에 교과서는 필수 불가결의 역할을 한다. 지도안 작성이나 수업 실연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되는데, 교과서 자체가 그러한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바탕으로 연습하는 것이 2차 시험의 직접적인 준비가 된다. 처음에는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여 동기유발이나 활동 등을 구성할 수 있고, 점차 익숙해지면 교과서를 바탕으로 문제를 직접 내 보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실 이렇게 교과서의 중요함에 대해 한참을 역설하였지만, 정작 나도 얼마 전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 잘 느끼지 못했다. 그렇지만 시험을 준비하면서 점점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후배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감사하게도,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 중앙도서관에 각종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가 들어와 잘 활용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사범대 학생수에 비해서 권수가 정말 모자라다.

사범대 학생들이 교과서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서관에 그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교과서들이 더 많이 비치된다면 부족한 선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억하라. 뿌린 대로 거둔다.



박승규
한라중학교 교사

점점 늘어가는
불법 피라미드의 피해!
대학생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경기침체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고수익 보장,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유인하는 불법 피라미드! 공정부위, 공제조합과 함께 미리미리 예방하여 피해를 막아보세요.

취업, 단기간 고수익 보장 미끼

불법 대출 알선

단체합숙, 교육 강요

반쯤·환불 거절

신고처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KOSSA.or.kr

불법 피라미드
신고시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MACCO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제주대신문의 취업간담회

전공·적성·특기 살려 취업의 기본을 닦자

학생역량 강화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취업 도우미 역할

<2> 제주대 취업 프로그램

지난 기획에서는 우리 대학의 ‘취업’ 현황과 취업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봤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우리 대학 내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오즘 다들 취업 때문에 걱정인데, 저 또한 3학년이 되다보니 취업에 대한 걱정과 함께 취업 준비를 위해 우리학교의 취업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혼자 하려면 쉽지만은 않은 취업 준비를 학내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



본관 대학원동 1층에 있는 '잡카페'에서 취업정보를 찾고 있는 학생들(위) 2015년 2월 3일부터 이틀간 열린 '상반기 공채대비 취업캠프'를 통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아래)

어서 많은 도움이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양질의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모르는 학생도 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이자 최고의 도우미는 학교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교내 취업 프로그램들은 단지 상담이나 자기소개서 첨삭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내 취업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생들을 위해 준비된 학내 취업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자.

◇취업 준비의 메카, 취업전략본부

“취업을 향한 험난한 여정에 들어선 혹은 아직 취업이 머나먼 이야기인 당신. 인터넷과 지인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알짜배기 프로그램들이 모두 여기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새내기 때부터 단계별로 착실하게 밟아가자.” 학내에서 가장 다양한 취업 전략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취업전략본부’다. 제주대 학생들의 원활한 ‘School to Work’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진로 및 구직활동에 도움을 주는 교육지원기관이다.

우선 취업전략본부는 학생들이 다양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정보실(Job cafe)를 운영하고 있다. 최신 서적·기업 홍보자료·월간지·기업·연감 등이 비치돼 열람 및 대여할 수 있다. 정보 검색과 서류 작성을 위한 PC도 설치돼 있다.

또 취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취업 추천의뢰와 취업 전문회사에서 보내오는 채용정보를 제공하며 온라인 입사지원과 각종 취업 행사에 관한 공지를 하고 있다.

기업체 채용담당자를 초청해 기업의 채용 정보와 직무 내용, 입사지원 전략 소개, 개인 상담을 실시하는 ‘채용설명회’도 운영 중이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프로그램으로 기업 실무, 독서 토론, 외부 강사 인성교육 특강, 봉사활동 및 합숙훈련과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HR 아카데미’ 또한 취업전략본부에서 실시되고 있다.

또한 취업전략본부는 졸업 후 진로 및 취업과 관련, 변화하는 취업 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취업영어’, ‘진로와 직업의 세계’, ‘취업과 직업의 세계’ 등 취업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셀프면접시스템, 국내외 인턴십, 상시 심리검사, 성공 취업을 위한 입사서류와 면접 클리닉, 취업캠프, 데일 카네기 리더십 트레이닝, 학생경력관리시스템, 1:1상담 프로그램, 두드림, 서비스컨설턴트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기업과 학생을 연결하는 LINC사업단

“취업 준비, 이론만으론 NO! 이론 현장에서 배운다. 취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동시에” LINC사업은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취업 미스매치 해소 및 대학과 공생발전을 견인하고자 시작했다. LINC사업에서는 특성과 사업과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연계전공 트랙 △

창업 △저학년 대상 특성화 관련 교과 △연계전공 트랙 △창업 △저학년 대상 특성화 관련 교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선 학생들의 경력형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취업연계 증진과 학점도 취득할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 기업의 취업 기회와 경력가산점 획득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차별화 된 자기소개서, 기업의 인재상 파악 등의 이점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또한 사업단은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동아리 ITEM 선정 설명회와 창업가적 문제해결 워크숍, 방학 기간 내 취업 캠프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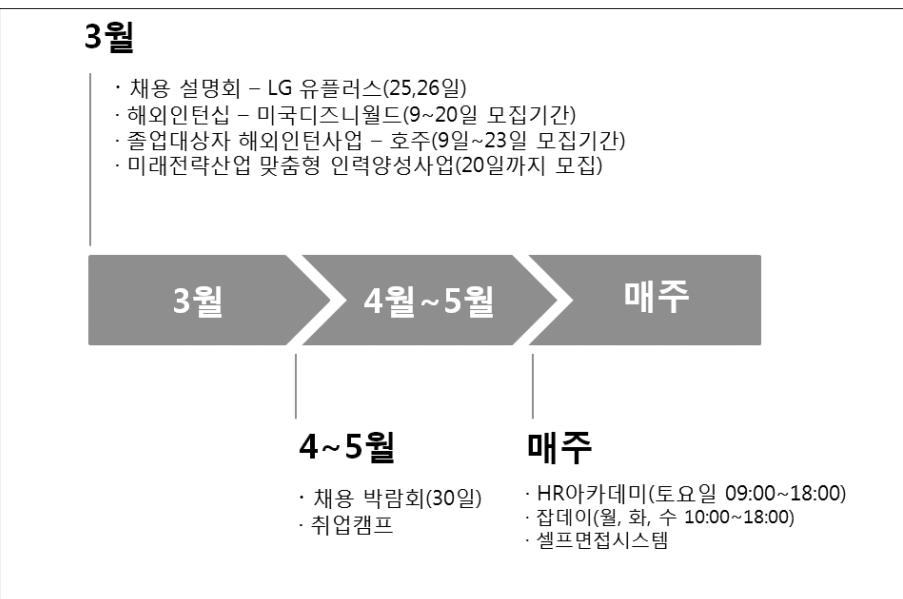
사업단은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설계에서 제작, 결과물 발표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도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진로방향 제시와 창업 유도, 기업과의 교류의 장 마련 등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기업체 맞춤형 인재를 양성을 위한 특성화 분야 교육도 이뤄지고 있다. 풍력 서비스, 청정 헬스푸드, 부티향장·물, 휴양형 MICE 등 4가지 분야에서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진화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을 위한 역량 강화, 기초교양교육원

기초교육원의 프로그램은 취업을 위한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 함양, 기업의 인재상에 근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술을 튜터링과 혼디모양 멘토링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법 워크숍과 맞춤형 컨설팅으로 개인별 학습전략 진단 및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학생의 부족한 부분과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확정된 취업프로그램 일정. 3월부터 5월까지의 취업프로그램과 매주 운영되는 취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위해 상시 준비되고 있다.

이외에도 기획예산처 작성, 글쓰기 등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단과대학별 취업 프로그램

단과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취업전략본부와 연계한 취업프로그램과 협약을 통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역량강화 사업, 지원 사업 등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대기 중이다.

인문대학은 문화콘텐츠 기획홍보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09년 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공과 연계된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했다. 협력업체 임직원과 현장전문가 위주의 실무강의와 영상문화기획, 출판홍보, 기자, 학예사, 사회복지 등 트랙별 지도교수의 연수생 진로 상담과 실습기관 섭외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과학대학은 공무원 시험, 외무고시 등을 응시하는 학생들을 위해 시험대비 비

디오 강좌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또 취업캠프, 면접 특강, 동문 및 전문가 초청 강연 등 학과 차원의 학과별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범대학은 모든 학과의 임용고시 과목 중 하나인 교육학을 특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비 교사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아라교육광장’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교사들을 초청해 타 지역의 임용 현황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임용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임용고시 준비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용시험 대비를 위해 사범대학 독후감 콘테스트, 교육학 논술 및 한국사 시험 대비 특강, 각 전공별 초청강의 및 동영상강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과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은 취업전략본부와 연계한 취업컨설팅트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찾아가는 취업특강’과 1:1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학생들의 취업 설계를 돕고 있다. 이외에도 상담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취업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부한우 기자

함박웃음 피어나는 동아리탐방 2

TIME

효과적 학습·선후배간 유대 돈보여

타임지(TIME)는 미국의 주간지이다. 또한 현재 미국의 잡지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주간지이기도 하다. 그만큼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TIME은 학술분과동아리에 속해 있는 시사 영어 동아리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동아리였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룹스터디의 형식으로 타임지를 읽고 해석하고 발표하기만 하는 단순한 모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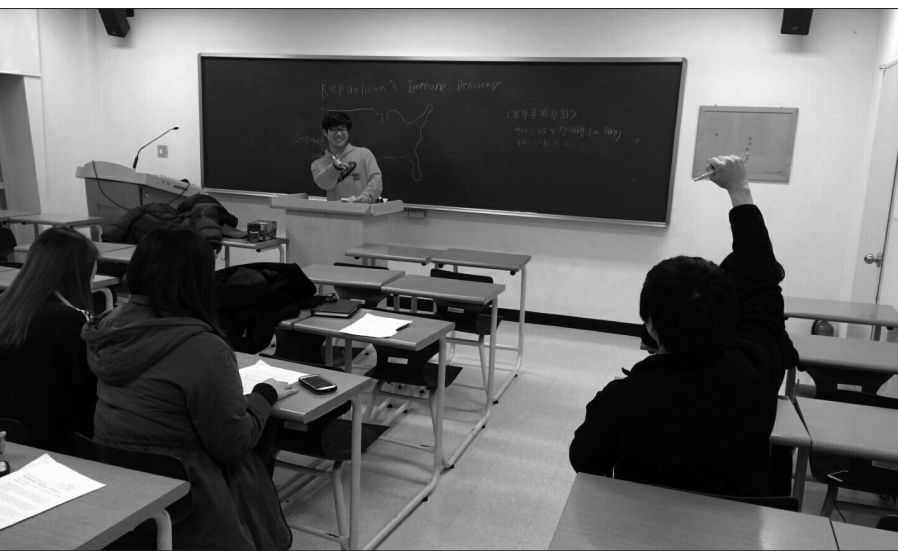
하지만 1980년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모든 학교에 있는 모임은 신고를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TIME은 그렇게 동아리가 됐다. 그 때부터 화제가 생겨나고 활동을 시작했다. 오랜시간 동안 이뤄지다보니 많은 선배들이 졸업한 후에도 지원과 도움이 끊이지 않았다.

◇타임지를 읽는 사람들

스터디가 열리는 날이면 사뭇 진지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기도 한다. 매주 각각 2회씩 열리는 조 스터디와 전체 스터디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준비한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학생들은 타임지를 읽고 자신이 맡은 부분을 확인하고 다음 모임까지 해석한다.

조 스터디는 주로 신입생 10명 정도를 그룹으로 묶는다. 그 후 조장과 부조장을 선출한다. 조장이 타임지에 있는 기사를 선택하고 카페에 올리거나 인쇄해 동아리 방에 게시하면 조원들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다음 스터디까지 해석한다. 그리고 스터디 당일 날 학생들에게 자신이 해석한 글을 발표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와 관련해 질문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전체 스터디는 주로 고학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스터디 방식은 조별스터디와 비



한 학생이 타임지를 해석한 발표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행 방식은 먼저 발표자를 선정한다. 그 후 발표자가 타임지의 기사를 선정한다. 발표자는 선정한 기사를 다른 학우들에게 말해주고 스터디를 준비를 시작한다. 발표자는 먼저 학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사에 관한 배경을 먼저 설명한다. 그 후 타임지를 읽고 문단을 해석해 주제를 정리한다. 이러한 스터디는 학기 중을 제외하고도 방학에도 꾸준히 운영된다. 정영철(수학과 2)회장은 “타임지 기사를 통해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읽는 능력이 향상됐다”며 “토의실력도 저절로 상승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TIME은 다른 동아리와 다르게 개강과 종강의 문화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교류를 통해 경험을 쌓는 사람들

TIME의 행사는 스터디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은 타 대학과의 합동 스

터디를 통해 서로 교류의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014년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 타 대학과의 교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2013년까지는 꾸준히 타 국립대에 방문하며 서로 간의 공부방식을 교류하는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계절마다 가는 MT를 통해 선후배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이외에도 동우회 선배들을 초청해 1년에 2번씩 전체스터디 형식의 방식으로 활동을 하기도 한다.

정영철 회장은 “저희 동아리에서는 시사 관련외에도 타임지에 나온 예술, 과학, 건축, 미술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룬다”며 “가입 후 열심히 활동한다면 영어실력 외에도 많은 것들을 얻고 갈 수 있을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J·U·S·T

바닷속 신비에 반한 사람들

스쿠버다이빙은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한 계수심인 약 30m까지 잠수해 즐기는 스포츠이다. 스포츠로서의 목적 외에도 수중, 작업, 학술연구 등에 이용된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J·U·S·T’는 체육동아리에 속해 있는 스쿠버다이빙 동아리이다. ‘J·U·S·T’는 ‘JeJu University Scuba diving Team’의 줄임말이다. 이 동아리는 1985년 UDT 출신의 학생들에 의해서 탄생됐다.

◇오해와 주변 시선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J·U·S·T’는 설립 당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스쿠버다이빙이라는 용어가 생소해 해녀들이나 주민들이 스쿠버다이빙을 배우면 해산물을 마음대로 먹고 생업에 방해되는 활동을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시선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J·U·S·T’ 학생들은 제주 앞바다 해양 정화활동 등을 하면서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이미지개선에 앞장섰다. 그들은 훈련을 하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심해에 들어가 쓰레기를 줍는 등 정화활동을 했다. 때문에 주민들과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한다. 그 봉사정신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지금은 마을 주민들이 이들이 훈련할 때 지켜봐주고 박수도 쳐준다고 한다.

◇긴장감이 땀도는 훈련과정

그들의 훈련과정은 늘 긴장감이 땀돈다. 바다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J·U·S·T’는 훈련을 이론교육, 1차 훈련, 2차 훈련으로

진행한다. 이론교육에서는 스쿠버다이빙에 대한 기본지식을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생회관 시청각실에서 PPT를 이용해 기초적인 장비에 대한 설명과 기본이 되는 기술을 설명한다. 또한 안전 교육과 수신호에 대해서 진행한다.

1차 훈련에서는 스쿠버다이빙 복장을 착용하고 해안가를 뛰는 기초체력다지기 프로그램을 한다. 노래를 부르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박수를 쳐주며 응원해주기도 한다. 체력훈련이 끝나면 바다 적응훈련 등 실전 교육을 진행한다.

2차 훈련은 5박 6일동안 합숙훈련을 통해서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공기통을 이용해 스쿠버다이빙훈련을 한다. 학생들은 총 3번의 교육기간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다.

홍선주(생활환경복지학부 3)회장은 “학

생들이 처음에 가입하면 개인장비를 사야한다”며 “개인장비의 가격이 작은 편은 아니지만 취미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훈련을 마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자격증이 발급된다”며 “스쿠버다이빙은 본인이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것이 많다”고 말했다.

2차 훈련까지 끝나면 ‘J·U·S·T’에서는 간단한 테스트 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제공한다. 자격증을 받은 학생들은 2학기가 되면 직접 장비를 가지고 범선, 섬섬, 문섬 등에 가서 다이빙연습을 한다.

홍선주 회장은 “저희 동아리는 자신의 체력한계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좋은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며 “가입하신다면 한계를 뛰어넘는 의지와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김해건 기자



J·U·S·T 학생들이 합덕해수욕장에서 스쿠버다이빙전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 학생자치기구 출범식

‘초심, 뒷심, 열심’ 항상 되새길 것 운영과정 공개해 투명한 총학 약속

정·원일권 (영어영문학과 4·오른쪽)
부·현지훈 (에너지공학과 4)



인터뷰 ‘So아라’ 총학생회

▶출범 소감은.

일반아라의 최종 선택을 받은 만큼 책임감이 무겁다. 총학생회장은 선거에 두 번째 도전을 하면서 주변인들에게 ‘총학생회장의 가치’에 대해 재차 질문을 받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 학급의 대표가 돼 학우들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가슴 벅찼다.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 가장 잘하는 일이 됐다. 일반 아라가 So아라를 믿어준 만큼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

▶‘So아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보통 학생회라는 조직은 학우들이 다가가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다. So아라는 이러한 선입견을 타개하려고 한다. 학우 개개인의 위치에서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학생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So아라는 세 개의 모토를 품고 있다. So라는 강조, Sound of Ara라는 대변, ‘쏘아라’라는 실천의 의미이다. 항상 학우 중심으로 행동하는 So아라가 되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공약은.

선거 운동을 펼칠 때부터 비슷한 질문을 항상 받아왔다. So아라가 준비한 공약을 찬성하는 학우가 있는 반면 반대하는 학우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일반 학우들을 모두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

즉, 중점적인 공약을 선정해 추진해도 일부 학우한테는 미온 공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공약은 공평히 모두 실천키로 했다. 편애는 So아라 철학에 맞지 않는다.

▶현재 이행된 공약은.

이행이라는 단어가 정말 모호하다. 100% 완료된 공약이 있는 반면 시행단계에 걸친 정책들이 있다. 우선, 대운동장 관련된 정책들이 대부분 실현됐다. LED 시계는 공정이 모두 끝나쳐 대운동장에 설치만 하면 된다. 또한 대운동장 갯길,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구현했다. 올해 아라대동제는 잔디밭이 아닌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학생들은 빈 강의실 이용을 원한다면 항상 총학생회를 찾아오길 바란다. 학기 초반이라 행사가 많아 홍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So나무숲도 빠른 시일 안에 학생들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학생생활관 통금시간도 오전 1시에서 1시간 연장된다. 정책은 이미 통과됐지만 대학 상황에 따라 연기된 것들도 많다. 앞으로 남은 공약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행하는데 애를 먹었던 공약은.

말 그대로 발로 뛰어 시행한 ‘강의계획서 게시 제도’ 공약이다. 학사과는 매번 교수들에게 강의계획서를 게시해달라고 공문을 보낸다. 그래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교수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결국 수강신청 당시 277개의 미개재 강의 계획서가 34개로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힘들었던 만큼 학우들에게 큰 도움이 돼 뿌듯하다.

가능한가.

물론 올해 당장 13개의 단과대학에 모두 세미나실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2~3개 단과대학에 세미나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벌써 경상대학은 세미나실 도입을 우선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단과대학에 세미나실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은 약 1800만원이다. 우리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게 공문을 보내 공사비용 일정 부분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올해 총학생회 시설사업비 예산은 약 2억8000만원인데, 각 단과대학이 어느정도 지원한다면 세미나실 도입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사업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초석을 잘 다져놓겠다.

“준비한 공약은 공평히 모두 실천”

“기성회 폐지 문제해결 현명한 방법 강구”

“존폐위기 장애인인권위원회 유지 위해 노력”

▶총학생회 운영자금 현황을 계속 공개할 것인가.

물론이다. 현재 학생자치기구 홈페이지가 3월에 들어와서야 ‘진짜’에서 ‘So아라’로 바뀌었다. 운영자금 현황은 물론 회의록도 게시하고 있다.

▶기성회비가 등록예치금으로 이름만 변경됐. 이에 대한 생각은.

국·공립대 총학생회에게 있어 ‘기성회비’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대학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성회비’라는 돈을 징수한 건 맞지만, 학교를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바로 기성회비다. 심지어 학내 직원들의 급여도 기성회비로 지급하고 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막무가내로 대학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독이 된다. 그러나 학생들이 원한다면 총학생회는 움직이겠다. 현재 등록예치금은 말 그대로 예치돼 있다. 아무데도 사용하지 못한 채 묶여있는 돈이다. 보다 현명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아작은 조심스럽다.

▶각 단과대에 세미나실 도입이 현실적으로

▶작년에는 특히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많았다. 이를 위한 대책이 있는가.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상대피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직원들에 국한돼있는 훈련을 학생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So나무숲이란.

한마디로 ‘마음의 소리함’이다. 소리함을 덩그러니 설치하기엔 식상하니 모형나무를 만들었다. 학생들은 자기가 하고싶은 말을 종이에 적어 소리함에 넣던가 나무에 매달면 된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염려돼 익명으로 적어도 아무 문제 없다.

So나무숲은 특정한 장소가 아닌 학내 무작위에 설치될 예정이다. 또한 설치기간도 랜덤이다. 약속했지만 존재의 필요성을 망각한다는 말이 있다. So나무숲이 언제든지 학생들 곁에 있는 상황보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울지 모르다’라는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욱 학우들이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총학생회가 학교를 위해, 학생을 위해 더

욱 힘쓰려면 학우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작은 종이를 읽고 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So나무숲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

▶유학생, 장애학우를 위한 정책은.

문화가 다르지만 유학생들도 같은 제주대학생이다. 한국학생들과 차별하지 않고 최대한 도우려고 한다.

최근에 총유학생회장과 만났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지만 So아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 낯선 곳이지만 불편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학생회를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활관 내 전자랜지가 없어 일부 유학생들이 불만을 갖고있다고 들었다. 임기동안 반드시 전자랜지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머나먼 타지까지와서 입맛에 맞지않는 음식을 먹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다.

장애학우들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장애인인권위원회를 총학생회 산하에 두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작년에 장애인인권위원장이 직위를 그만두겠다고 해 존폐위기에 처해있었다.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장애학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서로 힘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인권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더 많은 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다.

▶So아라가 준비한 대동제는.

다르다. 과거의 대동제들과 확실한 차이를 보여주겠다. 우선 축제는 잔디밭이 아닌 대운동장에서 진행한다. 어르신들이 땀 흘려가꾼 잔디밭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겠다.

또한 과거의 대동제들은 학생회에서 모두 준비한 것이 아닌 대행업체를 이용했다. 하지만 우리는 대행업체가 아닌 So아라 내 축제기획팀이 축제를 준비한다. 이를 통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질 높은 대동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학내구성원들에게 한마디.

말로 뭉뚱했다. 말로 알기알파하는 것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So아라 여가에 일반아라의 기대가 실려있다. 선의의 부담감을 안고 부끄럽지 않는 총학생회가 되겠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 ‘초심, 뒷심, 열심’이라는 말을 항상 되새기겠다. 또한 So아라 총학생회실은 항상 열려있다. 누구든지 방문해달라. 언제나 웃으며 맞이하겠다.

백승규 기자



정·홍은혜 (전자공학과 4·오른쪽)
부·김수윤 (환경공학과 3)

“여학우들의 복지와 안전 위해 노력할 것”

인터뷰 ‘소공녀’ 총여학생회

▶출범 소감은.

2015년 ‘소공녀’ 총여학생회를 알리는 첫 행사이고 처음으로 4대 자치기구 통합출범식으로 이루어졌다. 총여학생회의 무사 안녕을 기하는 행사이며 학생들을 처음 대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었다. 또한 출범식에 공약 중 하나인 레드파라솔데이를 진행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다.

▶현재 이행된 공약은.

출범식에 메인 공약이었던 레드파라솔데이 행사를 추진했다. 또한 매달 하기로 했던 우먼스테이는 방학 기간인 1.2월에 진행했다. 파우더룸과 여학생수면실개방은 이미 완료했다.

이외에도 내세웠던 공약은 아니었지만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이었다는 것을 학우들에게 알리기 위해 3월 9일 학교 정문에서 여성의 날 상징물인 빵과 장미를 나눠주었다.

▶중점을 걸고 추진할 사업은.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하지만 학생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먼스테이와 레드파라솔데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우먼스테이는 꾸준히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학우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기 위해 매달 넷째 주 목요일 학생회관 1층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3월에는 찾침을 운영해 학우들과 소통할 생각이다. 또한 학우들에게 총여학생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레드파라솔데이에 집중할 생각이다. 총여학생회 행사에 남자가 왜 가야하느냐는 의문을 가진 남학우들이 많다. 이런 학생들에게 남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여학우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고 알리고 싶다.

▶기존 총여학생회에서 했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존 총여학생회의 정책을 물려받은 것이 여학생 수면실제공, 총여학생회 프린터 사용, 자강경부암 약품 접종, 시험 기간 간식 배부, 파우더룸 등이 있다.

간식 배부 같은 경우는 기존정책을 유지하되 추가적으로 테마를 정해 그에 맞는 의견을 듣고 인원을 선정해 특별한 간식을 드릴 예정이다. 파우더룸은 추가적으로 커튼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여학생 수면실 CCTV 문제를 빠르게 보완할 생각이다.

이외에도 다른 정책들은 기존정책을 유지하거나 업그레이드해서 학우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대운동장 벽화 그리기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작년과 달리 열두 개 단과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또한 열두 개 단과 대표들과 상상유니버스 관계자들과 매주 금요일 도안준비 등 벽화 대표회의를 하고 있다.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절충해 진행할 계획이다. 날짜는 4월 말 정도에 진행해 이틀에 소요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당선된 후 기존 선본과는 다른 임원들이 구성됐는데 정책을 이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방학 중 리더쉽 캠프에 다녀왔다. 기간 동안 1년 사업계획을 얘기하는 등 토의와 발표, 피드백을 통해서 각자의 일에 대해서 파악이 완료됐다. 총여학생회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하겠다.

▶학내구성원들에게 한마디.

학생들에게 믿음을 주는 방법은 내세운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다.

우먼스테이와 레드파라솔데이를 중점계획이라고 말하는 했지만 학우들과 약속한 공약은 모두 중요하다. 학우들과의 약속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학우들이 총여학생회로 찾아오거나 SNS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말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는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소공녀의 뜻처럼 학우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소통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해건 기자

“선거 비용 줄이기 위해 선거 기간 줄일 것

1학기 대의원 총회에서 학생회칙 개정”

정·정재영 (건축공학과 4·왼쪽)
부·김창규 (사회학과 4)



인터뷰 ‘품격’ 총대의원회

▶‘품격’이 생각하는 대의원회는 무엇인가.

총회, 감사, 선거를 주축하는 학과대표로 이뤄진 집단이기 때문에 학생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자치기구이기 때문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기 중에 중점적으로 시행할 정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기구라기보다는 저의 역할인 총회 감사선거에 포커스를 두고 운영할 것이다. 그래도 굳이 하나 꼽아 보면 대의원회 기념품 증정이다. 총회의 학과대표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선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한 대의원회의 업무를 공개한데 했는데 아직 홈페이지에는 ‘우선순위’가 적혀있다.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 측과 논의하고 있다. 또한 감사와 총회 결과는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들이 알 수 있도록 SNS와 대자보 등 여러 창구로 게시할 것이다.

▶올해에는 감사, 선거, 총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선은 1학기 대의원총회에서 학생회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감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강력한 조항을 만들어서 학과와 단과대학, 4대 자치기구의 깨끗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선거 같은 경우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과열되는 분위기를 막기 위해 2주인 선거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 업무 외의 이벤트성 행사는 집중도와 예산을 분산시킨다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총대의원도 학우들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기 때문에 학우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예산 비중을 크게 두지 않아 3가지 기본 역할에 지장 가지 않도록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선출직인 총대의원회 또한 견제할 수 있는 독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독립적인 선관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다. 학과대표들이 선택해서 선출된 임원들이고 독립적 선관위가 만들어진

다면 총대의원회의 존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독립적인 선관위가 만들어진다면 해도 혼란을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대의원장이 당연직으로 선관위원장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학과 감사 기준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가.

학과비 논란이 많다. 학과비 예산 축적의 권한의 학회장의 권한이다. 학과마다 특성이 다르다 보니 학과비가 모두 다르다. 예산을 통일할 방법이 없다 해 수없이 고민했다. 그런데 이번 년도에 확실한 변화를 준 것은 선 정기총회 후 수급이다. 정기총회는 한 해 학과예산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과대표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를 강력한 조항으로 만들어 규제를 강화했다. 모든 학과가 이를 따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90%이상의 학과가 이를 따랐고 따르지 않은 과를 조사할 것이다.

▶왜 학과마다 예산이 다르다고 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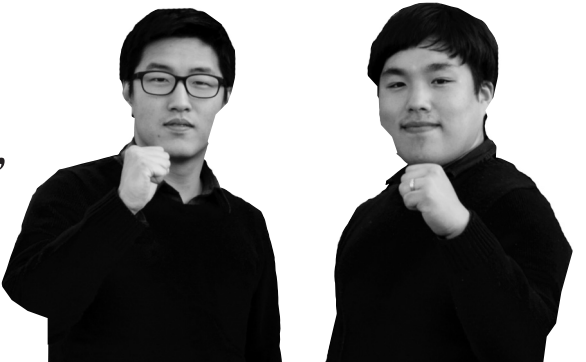
사범대학의 경우 인원수가 적고, 공과대학은 학생이 많은 반면 학술박람회 같은 행사가 많다. 따라서 한마디로 학과 특성이 거 같다. 인원 수와 행사 수와 규모 등이 예산을 좌우한다.

전지민 기자

“모바일 웹 등을 통한 여러 통로로 소통

2학기 동아리 축제 ‘대동놀이’ 철저히 준비”

정·문경록 (수학과 4·왼쪽)
부·김태양 (사회학과 4)



인터뷰 ‘함박웃음’ 동아리연합회

▶출범 소감은.

높은 지지율로 동아리인들의 당선패 감회가 새롭다. 앞으로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아리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연합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일반 학우들도 동아리에 대해서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

▶3월에는 동아리 홍보와 동아리 가입을 받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가.

신입생들이 과거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 동아리 활동보다는 학업에 열중하는 것 같다. 때문에 과거보다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많은 힘이 들었다. 하지만 동아리구성원들이 홍보기간 동안 많은 시간 투자를 해 다양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학생회관 관리를 동아리연합회가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학생회관 관리는 시설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받고 있다. 현재까지는 학생회관

내 모든 시설은 관리대장을 통해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회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만약 학생회관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불편하다면 학생들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다.

또한 학생복지과와 협력해 학생회관 내 소화시설과 안전시설 관리를 꼼꼼히 해 불시의 사고에 대비하겠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우선 지금은 동아리 홍보 기간인 만큼 계획대로 동아리 홍보에 힘을 것이다. 학생회관 화장실에 통신문을 붙여 학우들에게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 알릴 계획이다. 또한 2학기 때 동아리 인들과 약속한 대동놀이를 개최하기 위해 계획안을 검토하는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예전부터 진행한 사업들을 진행할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모바일 웹은 완성돼 학생들에게 알렸다. 또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해서 추가해 나갈 생각이다. 웹은 검색포탈에 ‘함박웃음 동아리연합회’를 검색하면 된다. 일반 학우

들도 쉽게 들어와 동아리에 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동아리 회장들과 함께는 대표자 회의를 진행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 또한 비관이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 많은 학생이 불편함 없는 동아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떤 동아리연합회를 만들 것인가.

함박웃음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모든 동아리인들이 함께 박수치며 웃을 짓는 그 날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비관이나 지적을 기꺼이 받아들여 많은 학생이 불편함 없는 동아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내구성원들에게 한마디.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와 동등한 선에서 그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도움을 주는 곳이다. 가입한 학생이라면 재밌는 동아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입하지 않은 학생들은 한 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

김해건 기자

교수시론



장혜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지쳐있는 학생들
진심으로 그들의 삶을
지원한다

돌하르방



부찬우
대학 부장

“
대학의 비전을 위해
대학원 등록금 문제로
신경써야

독자기고

류큐대 교류수학, 새로운 꿈을 찾은 계기

한미경
화학·코스메틱스학부 4



1월 5일부터 12일까지 자연과학대학 생물종다양성 천연화장품 인재양성사업단(CK-1)에서 생물학과, 화학·코스메틱스 학부 학생 8명과 교수님 2분과 함께 오키나와 류큐대 이학부에 교류수학을 다녀왔다. 류큐대는 1950년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군정에 의해서 설립됐고, 지금까지 의학, 농학, 법학, 이학부 등 6개 학부가 있다. 이곳에서 우리는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류큐대 이학부에서 1주일동안 교류수학을 했다. 오키나와 나하 공항에 내리니 따뜻한 날씨, 짙조름한 바다 냄새가 반겼다. 학교에서의 수업은 서로의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진행되었다. 영어로 묻고, 듣고, 말하고, 답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해서 한국어, 일본어, 영어가 섞이는 3개 국어의 대화가 되기도 했다. 또, 일본 학생들과 같이 수업 듣고, 실험하면서 서로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한 비전 등 여러 생각들을 함께 고민하고 얘기하기도 했다. 학교를 벗어나 Sessoko 연구소, OIST를 다녀오면서 연구 환경이 한국과 비교해서 일본이 훨씬 좋다는 것을 느꼈다. Sesoko 연구소는 Coral을 중심으로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곳으로 오키나와가 섬이고 산호초가 풍부한 곳이기 때문에 산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곳에서 연구를 한다고 한다. Sesoko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올 수 있는 곳 오는 곳이라고 한다. 또 Sesoko는 장시간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원뿐만 아

니라 그 가족들도 와서 생활할 수 있게 시설이 잘 돼 있었다. 연구환경도 정말 최고라고 느꼈다. 그리고 OIST도 다녀왔는데, OIST(Okinaw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는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이다. 그래서 인지도 학생들과 연구원들도 일본인의 비율보다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 OIST는 자연과학과 공학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학교로서 따로 과가 개설되지 않고,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 Faculty위주의 학교였다. 학생들은 모든 연구를 다 거치고 나서야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대학원과 비교해서 많은 양을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연구 환경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최고였다. 학생이나 연구원이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면 연구실도, 연구할 기기들도 원하는 만큼 지원해주고 보수, 설비까지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후에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OIST에서 공부를 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도 멋진 곳이었다. 일주일 남짓의 시간이었지만 앞으로의 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었다. 새로운 환경과 경험들이 내가 꿈꿔왔던 좋은 밑바탕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의 좋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본다. 이번 교류수학이 내 안의 열정을 키웠다. 그곳에서의 값진 경험과 인연을 가지고서 앞으로 이 꿈을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양도서관까지 걸어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 때도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면 뜨거운 젊음의 열정이 느껴졌던 것만큼은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90년대 후반 시절은 사실 모든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취업을 걱정하며 방학이면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나 어학을 공부하던 시절은 아니었다. 대부분 대학교 1학년에는 그동안 힘들었던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을 잊기 위해 즐겁게 노는 시기로 생각했고, 인젠가 학과 공부나 관심 분야를 찾아 공부하면 취업은 될 수 있다고들 생각했었다. 나 역시 법대생이었지만 당시는 막연하게나마 사법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한 정도였을 예도, 미래는 장밋빛으로 느껴졌으며(사실 미래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졸업을 하면 응당 무언가는 되어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다. 그렇기에 나 역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까지 이른바 공부 명목으로 힘들게 왔지만, 목표로 삼은 교과서 분량 중 열 몇 장을 넘기기 쉽지 않았고, 당시 로비에 놓여 있던 컴퓨터 앞에서, 또는 다른 소설책 등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부지기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요즘의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 청춘(青春)이 푸르게 피어날 시간도 없어 보인다. 교정을 떠나가도록 외치는 젊은 함성도 축제 기간 아주 잠시 들릴 뿐, 중

받았다. 현 정책상 대학의 등록금 인하 문제는 정부의 국가 장학금 지원책 등과 결부돼 있다. 그로 인해 학부의 경우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받아 대학당국에서도 등록금 인하를 피할 수 없지만 대학원은 그 어떤 해당사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런 대학 등록금 정책이 학부에 한정돼 있다 보니 실제 등록금 인상의 압박이 적은 대학원 등록금이 희생을 강요받으며 점차 등록금 인하 문제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학부 등록금 인하로 인한 부족한 재정을 대학원 등록금에서 보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원 등록금은 학부 등록금보다 비싼 편이고 대학원생은 국가장학금이나 취업 후 학자금을 상환하는 돈독학자금 대상 등에도 제외돼 있어 학부생들에 비해 학비 부담은 더욱 큰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은 계속해서 대학원생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2015년 제주대 재학생 중 학부생 수는 1만 948명이고 대학원생은 2000여명에 달한다. 등록 학생 10

양도서관 앞을 지나거나 학교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은 젊음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생동감과과는 또 별개로 항상 바쁜 듯 보인다. 이곳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만나는 학생들도 졸업에 대한 걱정, 변호사 시험 준비에 대한 걱정(시험 이후에는 마친가 지로 취업에 대한 걱정이 이어질 것이다)으로 힘들고 지쳐 보이는 학생들이 많다. 이런 청춘들을 보면서 교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은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자체로 빛나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말과 더불어 힘든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니 힘내라는 말을 건네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다. 혼자만 힘든 것도 아니고, 모두가 힘든 세상에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나아가 보자고 응원하고 싶다. 젊음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기에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 분명히 미래는 그런 시련이 없는 것보다는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응원하고 싶다. 이러한 응원의 마음은 대학 생활 시작과 더불어 불안감을 안고 시작하는 요즘의 청춘들을 바라보는, 이미 그 시절을 보낸 모든 어른들의 마음일 것이다. 진심으로 청춘들을 응원한다. 청춘이 더 빛나는 푸른 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더불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즘 세대보다는 편안하게, 덜 바쁘게, 덜 두렵게 청춘을 보낸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본다.

명중 1.5명 정도가 대학원생으로 대학 내에서 대학원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작지 않다. 그럼에도 대학원생들을 위한 그 어떤 배려도 없다. 대학당국은 학생들의 낮은 대학원 진학률에 우려를 표하고 대학원 진학을 촉구하면서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등록금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단순히 학생들의 낮은 대학원 진학률을 걱정하기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우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대학원 진학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경제적 부담이 결코 대학원 진학의 장애물이 되진 안 될 것이다. 대학당국에서 일시적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어려움을 회피해선 안 된다. 높은 대학원 진학률은 학내 우수 인재 확보와 연구역량 증대로 이어져 결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다. ‘아시아의 명문, 세계의 중심’이라는 우리 대학의 비전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대학원 진학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에 대학원 등록금 문제가 더 이상 외면의 대상이 아닌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돼야 한다.

새로운 만남은 참신한 시작이 아닐까

김이래
경영학과 2



중국발 자본 유입, 모두가 고민해야

이정
경영학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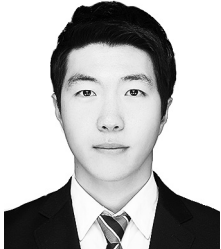


제주대 학생 중에 육지에서 온 학생들은 방학 때 친구들을 만나면 듣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중국인들에 대한 질문들이다.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실제로 많은지’, 그리고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땅을 얼마나 사들고 있는 지’에 대해서 육지부 친구들이 궁금해 한다. 최근 들어 이런 질문들이 많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성장일 것이다.중국 내 시장이 커지면서 축적된 자본들이 해외로 유입, 그 중에서도 제주에 중국 자본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다. 특히나 이런 자본들이 투기쪽에 많이 치중되면서 이에 ‘우리 제주도가 중국에 뺏기는게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있다. ‘자본이 유입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제주에서 이뤄지는 상황을 보면 조금 다르다. 제주도 중문에 있는 중국 호텔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이 제주도에 진출하고 제주도에 관광하러 올 때 중국 항공사를 타고 중국 호텔을 이용하며 그리고 중국 관광 패키지를 이용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거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제주도에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많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 관심을 팔고 있다. 육안으

로 볼 때 판권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화를 잘 벌여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나라의 한 예능 프로를 중국이 판권을 따 갔다 면 중국 사람들은 중국 방송에서는 하는 프로그램을 봤을 뿐 것이고 굳이 한국과 중국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청 할 여유 이유는 없어지는 것 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가 성공을 해도 중국 주주들에게 돈이 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많은 금액을 투자 하기 때문에 한국 드라마에 뜬금없이 중국 아들이 나타나고 중국 맥주가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었다. 현재 중국인들이 계속해서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조금 다르다. 제주도 중문에 있는 중국 호텔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이 제주도에 진출하고 제주도에 관광하러 올 때 중국 항공사를 타고 중국 호텔을 이용하며 그리고 중국 관광 패키지를 이용한다.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주도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은 거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제주도에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재 많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에 관심을 팔고 있다. 육안으

너의 꿈, 너에게 물어봐

동문칼럼



문종지
경영학과 08학번
넥스네트웍스 사원

청년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져 간다는 지금, 나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는 복을 받았다. ‘취업성공’이야 말로 요즘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말이 아닐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펜을 들게 되었다. 취준생들에게 묻고 싶다.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렇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연봉이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복리후생제도를 중요시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하는 일 등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어찌 됐든 좋다. 그 다음에 내가 하려는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으면 한다. ‘그럼 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이것은 내가 가장 궁금해 하는 대목이다. 지금 내가 묻는 것은 흔히 말하는 스펙(학점, 외국어점수, 자격증, 봉사활동 등)이 아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나는 2년 전, 제주대신문에 ‘자신의 꿈을 찾으려면 다양한 체험을’이라는 제목으로 독자기고를 했었다. 이 글은 그 후속편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사실 나는 ‘게임 매니아’다. 공부에는 소질도 흥미도 없고, 오락을 하면서 친구들과 답소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어려서부터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넘어 게임커뮤니티사이트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쌓아온 지식 덕분에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선 게임기자단 활동도 할 수 있었다.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게임 환경이 가장 최적화된 PC방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 게임에 너무 매진하고 있는 나를 보며 주변 친구들은 “네가 게임을 할 그 정도의 열정으로 다른 일을 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심심찮게 하곤 했다. 군대를 전역하고는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게임을 잠시 뒤로 미루고, 전공공부와 대외활동을 열심히 했다. 아직 찾지 못한 내 꿈을 찾기 위해서였다. 대외활동도 선택 할 때에 한 분야를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하였다. 금융권 서포터즈, 농어촌 기자단, 법조계 기자단, 중소기업탐방, 골목상권 서포터즈, 외국인 멘토링 등. 수많은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이 많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적성을 찾지 못했다며 좌절하기도 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미 대답은 나와 있었던 것이다. 난 게임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고 집중과 노력을 쏟는다. 동안 밀이 어렵다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망각하고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와서 보면 게임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한 것 같다. 내 적성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게임회사의 모집공고를 보면서였다. 자기소개서에도 대단한 것을 적은 것이 아니며 면접 당시에도 학점, 외국어성적 등이 아닌 게임의 이해도, 입사 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의 이야기를 했다. 요즘 많은 기업에서도 단순한 학점, 어학성적이 아닌 관련 직무의 이해와 경험을 중요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추세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들이 만들어가는 자격요건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본인이 생각하는 경험들을 쌓는 것이 더욱 값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모두가 취업전쟁에 뛰어들기 전에 스스로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준비하여 취업승리자가 되길 기원한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ac.kr

»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 - 제주대신문, 중국 상해·남경 취재기



화려함 그 안에 감춰진 아픈 역사를 찾아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안고 제주대신문 특별취재단은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남경, 무석을 현지 취재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 인도, 베트남, 라오스, 몽골 등 다양한 국가와 맞닿고 있는 중국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낯선 땅이다.

공산주의라는 다른 체제로 인해 알게 모르게 중국에 대한 여러 선입견이 있다. 상해 거리, 남경대학살 기념관, 남경대학, 복단대학 등을 돌아보며 놀라운 경제 성장과 화려한 불빛에 가려진 중국의 또 다른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다. 그 화려한 이면에 숨겨진 가슴 아픈 역사를 살펴보면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편집자 주>



‘가깝고도 먼 나라’. 비단 일본만을 가리키기보단 중국도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까? 6·25 전쟁에 중국군이 북한군의 우군으로 참전하며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는 정치적 적대관계와 경제적 단절이 계속됐다. 중국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된 시기는 오래되지 않았다. 1992년 그 동안 단절돼 왔던 한국과 중국이 정식 수교를 맺으면서 교류를 시작, 민간인 방문이 허용됐다. 지금에 이르러선 경제, 외교 등에서 중국은 미국 못지않은 최고의 파트너이다. 하지만 ‘동북공정’과 ‘이 어도’ 등 민감한 문제들 또한 양국 간에 산재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그럼 이제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에 대해 알아보자.

◇화려한 야경의 도시, 상해

‘동쪽의 파리’, ‘동양의 여왕’, ‘마력의 도시’ 등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곳은 바로 상해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 정치의 중심이라면 상해는 중국 내 4개의 직할시 중 하나로 공업기지이자 항구와 무역, 과학기술, 정보, 금융, 통신 등 중국경제의 중심인 도시다. 또 국제화와 현대화가 이뤄진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이며 주요 수출입 국경출입구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대도시다.

상해의 발전은 여러모로 외세, 서구 열강의 침탈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전만 해도 상해는 중국의 고도가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도 없고 지리적 위치도 중국 대륙 끝자락 양쯔강 하구에 붙어 있는 변두리 아촌이었다. 아편전쟁이 끝난 1842년, 상해는 난징 조약에 따라 대외 무역항 중 하나로 개항됨에 따라 이후 조계지로서 큰 경제 성장을 이뤘다. 개항 후 상해는 국경에서 가장 번창한 항구로써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이자 국제도

시가 됐다. 이런 역사로 인해 현재 상해는 많은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인해 만들어진 유럽식 건물과 수많은 고층건물들, 건물을 치장하는 불빛들로 그 화려함을 뽐내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끄는 관광지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상해 내 빼곡히 들어선 고층건물들과 화려한 야경은 중국의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듯 했다. 1월 1일 신년 맞이 행사 중 발생한 압사 사고의 추모를 위해 일본 건물들의 불들이 꺼졌지만 그 화려함은 빛을 잃지 않았다.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남경대학살 기념관



남경대학살 당시 약 6주 동안 일본군에게 희생된 중국인 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13일, 제1회 남경대학살 국가추모일이 열렸다. 당과 국가 지도층 등 최고지도층이 모두 참석한 대규모 추모식이었다. 일본의 본격적인 중국 내륙 침공의 서막을 연 남경침공, 거기서 발생한 비인륜적 사건이 바로 남경대학살이다. 6주 동안 30만 여명의 남경 시민과 무장 해체된 중국 군인들이 일본군들의 총칼 아래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칼로 찌르거나 총격, 생매장, 화형, 집단 강간뿐만 아니라 도저히 같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도 없는 살인 시합 등 일본군들의 끔찍한 폭력 아래 평화와 번영의 도시였던 남경은 음산하고 피로 얼룩진 지옥의 풍경으로 변했다. 홀로코스트의 주역 나치조차도 이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

해 역겨워한 나머지 남경대학살을 ‘아수의 행위’라 했다. 남경성공회의 존 마기 목사는 남경대학살을 ‘단테의 신곡에 묘사된 연옥이 남경시가 함락당한 그 날의 모습이며, 침략자 일본군은 피에 굶주린 지옥의 아수라 떼였다’고 증언했다. 그때의 그 참혹한 역사를 낱말로 기록하고 보존된 곳이 바로 남경대학살 기념관이다.

2007년 12월 남경대학살 70주년을 맞아 7만여평 규모의 남경대학살기념관을 확대 개관, 기념관 주변에 평화공원을 조성했다. 기념관은 일본군들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위로와 동시에 일본군의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건립됐다. 이런 기념관은 역사적 참상의 위에 설립돼 그 어떤 곳보다도 사실적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기념관은 내부 전시관과 외부조형물, 위령제단, 희생자표석 등 전체적으로 제2·3평화공원과 유사한 구조였다. 기념관 외부 곳곳에 설치된 고통에 몸부림 치고 울부짖는 동상들 또한 그 날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기념관 입구로 들어서면서 어둡고 음울한 분위기와 포격 소리가 반겼고 절로 긴장감과 숙연함을 불러일으켰다. 대학살의 발단과 경위 등을 그 당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의 전개를 보며 남경의 현대사에 다가설 수 있었고 직접 학살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생생했다. 희생자들의 아픔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전시관 끝에서 들린 낯선 소리에 발걸음이 이끌렸다. 어두운 공간 속 물방울이 12초 마다 1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이는 대학살 당시 12초 마다 1명씩 사람들이 희생됐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학살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화려한 야경을 뽐내는 상해(사진 위), 남경대학살 당시 일본군에 의해 살해되고 강가에 방치된 시신들(사진 아래).

아직도 일본에서는 ‘남경대학살은 역사적 허구이며 과장됐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다. 남경대학살을 ‘대학살’이 아닌 ‘사건’이라 부르며 역사적 사실을 축소하거나 일부 극우파에서는 ‘환상설’을 주장하며 ‘대학살은 중국인들이 조작한 일’이라며 ‘남경대학살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사실을 날조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학살에 대한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할 뿐이다. 잘못된 과거와 그에 대한 침묵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정부, 민간, 학계 등을 통해 계속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남경대학살이 주는 메시지

남경대학살은 어찌 보면 우리 제주가 지난 슬픔인 4·3과 많은 비슷한 점이 있다. 학

» 남경대학·복단대학 탐방기

캠퍼스 풍경을 통해 엿본 중국

대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서 그 사회의 특징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 캠퍼스 안의 모습을 통해 중국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주>

◇중국은 지금, 자전거 시대

‘자전거 천국’은 중국의 대학 풍경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 중의 하나일 것이다. 정문 앞, 도서관 앞, 대학식당 앞 등 어느 곳을 둘러봐도 끝도 없이 자전거들이 들어서 있다. 우리 대학이 주차장과 자동차로 가득 매워진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중국은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을 정도로 자전거 문화가 보편화돼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국 대학생들은 대부분이 전원 교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건물들 간의 거리가 멀기에 자전거가 캠퍼스 내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학 내에서 모든 경제생활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대학이 단순히 학문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부로 주민들에게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남경대학 안에서 태극권을 하고 있는 마을 주민.

◇잠시만요, 빨래 널고 가실게요!

중국 내 캠퍼스를 걷다보면 눈에 띄는 독특한 점이 보인다. 모든 기숙사마다 형형색색의 옷가지들이 햇살과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다. 이런 모습은 캠퍼스 내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다. 중국의 남부 지방 어디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모습들이다. 독특한 빨래 문화가 생겨난 이유는 중국 남부지방의 습한 날씨에서 비롯됐다. 기후적 요인으로 집안에 빨래를 널어두면 잘 마르지 않아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널기 시작한 것이 이런 진풍경을 만들어낸 것이다. 덧붙여 속옷도 같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속옷 역시 ‘옷’의 하나로 보는 사고방식의 일부기에 너무 놀라지는 않았으면 한다.



캠퍼스 곳곳을 가득 메운 학생들의 자전거.

◇대학도 지역사회의 일부

중국 주민들이 대학 캠퍼스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마치 공원에 온 듯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 사람들, 건강을 위해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온 사람들 등 대학이 학생이나 교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의 장소가 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대학이라는 느낌보다는 모든 이들의 쉼터와 같은 느낌이었다. 그 원인은 계획경제 시절의 대학정책에서 엿볼 수 있다. 계획경제 시절의 중국은 대학을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설정했다. 그래서



대학 안 기숙사마다 걸려 있는 빨래들.

부찬우 기자

살을 단행한 대상은 다르지만 군에서 자행한 민간인 대학살이라는 점과 엄청난 피해 규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 등이 그렇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자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역사적 관심의 차이가 컸다. 남경대학살 기념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고 역사적 관심은 그 어느 곳보다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에 반해 제주 4·3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고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4·3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돼야 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분분하다. 여러 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들을 느낄 수 있었고 제주 4·3에 대한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 제주 4·3의 진실규명 운동은 물론 세계적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만 급급해 그 이후 4·3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남경대학살 사례는 우리 제주가 새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제주 4·3에 대한 재조명이 시급히 필요하다. 부찬우 기자



“펜은 칼보다 낫다” 제주대신문 63기 수습기자 모집

입사혜택



1. A급장학금&업무보조장학금 지원
2. 매월 취재수수로 및 원고료 지급
3. 언론사에서 편집교육 및 취재교육 실시
4.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

- 모집대상 : 2015학년도 학부 신입생 및 2학년 재학생
- 모집기간 : 4월 3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ac.kr) 커뮤니티/자유게시판에서 입사지원서를 내려받아 출력 및 작성후 신문사에 제출
- 기타서류 : 자기소개서
- 장 소 : 본관 취업전략본부건물 3층 제주대신문
- 문 의 : 754-2277~9(제주대신문)

010-9785-5221(백승규 편집국장)